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19년 10월 20일 (셋째 주일)

성경본문 : 창세기 26장 1-11절

설교제목 : “성숙의 길 6(은혜)”

성숙이란 예수님과 연합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숙한 삶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숙이 예측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성숙으로 나아가는 길은 세상의 거센 바람을 직면해야 합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성숙의 길에서 후퇴하기도,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 들었던 첫 흉년이 이삭의 때에도 찾아왔습니다.(1절) 우리가 삶에는, 예나 지금이나, 우리 자신이 예측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고, 원하지 않는 삶의 변수들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1절에서 보면 ‘**그 땅에 흉년이 들때**’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그 땅**’이란 ‘**브엘라해로이**’입니다. (창24:62, 창25:11) **브엘라해로이**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깊은 영적교제를 나눈 신앙의 보금자리입니다. 따라서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상황을 영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던 삶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생겨서, 하나님과 유지하던 영적 교제의 상태가 위협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삭이 **그탈**로 내려갑니다. 이삭이 그탈로 내려간 이유는 흉년을 피해 사시사철 물이 흐르는 애굽으로 내려가려 했던 것입니다.(2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나타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애굽**은 항상 세상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대로 사는 좁은 길을 포기하고, 쉽게 편한 세속의 넓은 길로 나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이란 그탈을 포함한 가나안 땅 전역을 가리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의 상징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따라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는 말씀 역시 결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벗어나서 사명을 잊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자기 편에 속해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잣대와 가치에 충돌하면서 사는 자들을 무척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편에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대로 사는 좁은 길을 포기하고, 쉽고 편한 세속의 넓은 길로 나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원칙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록 좁은 길일지라도, 세속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원칙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3-4절)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5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런데 5절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에 대한 훈훈한 미담이 선뜻 동의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조를 완전히 지켰습니까? 결코 아닐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역시 5절의 말씀대로 온전히 삼니까?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5절의 내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5절의 메시지는 6-11절의 내용이 연관됩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삭이 그탈에 거주하는데, 그탈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 리브가의 미모 때문에 자신을 죽일 것 같아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황당한 스토리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스토리와 판박이입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었고, 이삭도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기자가 이러한 반복된 실수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실수를 통해서 이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지었던 죄를 반복하고, 앞드

려 회개한 죄를 또 반복해서 짓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비록 6-11절에 기록된 반복된 실수를 저지르는 이삭이지만, 하나님께서는 5절에 기록된 성숙한 아브라함의 자리로 이삭을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약함과 실수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성숙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원칙대로 살도록 이끄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온전히 성숙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늘 변함없이 좁은 길을 가고, 세속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원칙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종국에 아브라함을 성숙의 자리로 이끄신 것처럼 우리를 성숙의 자리로 이끌 것임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성숙이란 결코 나의 의지와 열심으로만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닙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으로 우리는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수 천번 실수해도, 당신의 팔을 우리에게 벌리십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허물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도 수백 번은 떨어져 나갔어야 하는데, 여전히 그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강권적으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을 이끄셔서 모리아 산의 성숙한 아브라함이 되게 하신 것처럼, 그리고 종국에는 아브라함에게 네가 나를 경외하는도다 라고 인정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역시 그렇게 이끌고 계십니다. 따라서 성숙의 성경적 의미는 퍼펙트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궁극적으로 온전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성숙의 성경적 의미는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넘어지지만, 성숙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빠진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온전한 성숙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견인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세상에 방치해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무한 책임을 가지고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따라서 내 힘과 의지로만 성숙의 자리에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시편 103:2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여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라”

※.말씀 살펴보기

- 1) 1절에 ‘그 땅에 흉년이 들때’가 갖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보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흉년이란 어떤 것이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 2) 6-11절의 이삭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말씀 나누며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하나님 나라의 원칙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만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원칙대로 살아간다면 세상은 어떻게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